

‘지중해의 강력한 북동풍’ 분다...마세라티 SUV ‘그레칼레’ 상륙

두 번째 SUV 모델 국내 출시
일상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스포티와 우아함의 적절한 균형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완벽 조화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가 새로운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그레칼레’(Grecale)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21일 마세라티에 따르면 이번에 국내에 선보이는 그레칼레는 마세라티 브랜드 역사상 두 번째 SUV 모델이다.

마세라티는 “디자인과 파워트레인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마세라티 슈퍼 스포츠카 MC20의 아이덴티티(identity,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레칼레는 ‘지중해의 강력한 북동풍’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몰아붙이는 마세라티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람의 이름을 발췌해 모델의 이름을 짓는 것은 마세라티의 전통이다.

그레칼레는 무엇보다 일상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SUV 모델로, 스포티함과 우아함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함께 마세라티의 열정과 혁신,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그레칼레는 마세라티 SUV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그레칼레 트로페오는 최고속도 285km/h, 제로백 3.8초로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오르렁’ 거리는 마세라티 엔진의 시그니처 사운드와 몰입형 소너스 파베르(SonusFaber) 다차원 사운드 시스템의 조합으로 한 차원 높은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에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되는 그레칼레는 30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GT 버전’과 330마력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모데나 버전’, MC20과 같은 네튜노 엔진을 기반으로 530마력의 V6 엔진이 장착된 고성능 ‘트로페오 버전’으로 구성됐다.

그레칼레는 SUV에 맞게 수평적 측면보다는 수직적 측면의 디자인적 요소를 갖췄다.

전면은 그레칼레의 가장 돋보이는 부분으로 과하지 않은 낮고 인상적인 그릴을 적용해 슈퍼 스포츠카 MC20를 떠올리게 했다.

후면부에는 부메랑 테일라이트와 마세라티 특유의 사디리플 라인을 적용했고 스포츠카처럼 마감한 실내 공간, 날렵한 리어 윈도우, 강력하고 대담한 펜더, 시각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게 하는 등 쿠페 효과가 더욱 부각된다. 이에 따라 그레칼레만



마세라티가 브랜드 역사상 두 번째 SUV 모델인 ‘그레칼레’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그레칼레 GT 버전 및 내관 모습(아래).

의 날렵함이 강조됐다.

특히 동급 최고 수준의 넓은 공간과 편안함이 돋보이는 패밀리 사이즈 SUV 모델이다. GT 버전 기준 ▲전장(길이) 4850mm, ▲휠베이스(축간거리) 2901mm, ▲전고(높이) 1670mm, ▲전폭(너비) 1950mm(모데나 및 트로페오는 30mm 더 넓음)다.

무엇보다 그레칼레는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디지털 시계 뿐 아니라 취향에 따라 스킨과 모습을 변경하는 디지털 화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적용됐다.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와 8.8인치 컴포트 디스플레이에서 간단한 터치를 통해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레칼레의 판매 가격은 9900만원부터 시작된다.

김광철 한국 마세라티 대표이사는 “마세라티 SUV의 정체성과 헤리티지를 재정의하는 상징적 모델인 그레칼레를 선보여 매우 기쁘다”며 “그레칼레 국내 출시를 통해 럭셔리 SUV 수입차 시장에서 마세라티가 제2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세라티는 ‘그레칼레’ 출시를 기념해 고유한 인테리어 및 기술콘텐츠가 담긴 한정판 모델 ‘그레칼레 프리마세리에 에디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프리마세리에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의 소유자 중 하나가 된다는 특권을 뜻하며, 독보적인 고급스러움을 감정으로 삼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강인해진 기아 레이 ‘그래비티’ 온다

디자인 차별화...차박 최적화
전용 커스터마이징 용품 추가

‘더 뉴 기아 레이’가 강인한 인상을 품고 돌아왔다.

기아는 더 뉴 기아 레이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 ‘그래비티’(Gravity)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그래비티는 레이의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강인한 느낌의 외관 이미지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다크메탈 색상을 적용한 전면부 센터 가니시(장식) 및 후면부 테일게이트 가니시는 보다 단단한 인상을 준다.

또한 ▲전·후면 스키드 플레이트(범퍼 하단부) ▲A필라 ▲루프 ▲아웃사이드 미러에 블랙 색상을 적용해 그래비티만의 세련된 분위기를 구현했다.

측면부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15인치 블랙 알루미늄 휠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전·후면부와 통일감을 연출했다.

그래비티 모델은 ▲클리어 화이트 ▲밀키 베이지 ▲아쿠아 민트 등 총 3가지의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1815만원이다.

앞서 기아가 선보인 더 뉴 레이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기아 레이’는 차로 유지 보조(LFA), 운전석 통풍시트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첨단 전자 보조 시스템 및 편의사양을 탑재하고, 운전석을 포함한 전 좌석 폴 폴딩 기능이 가능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모델이다.

이밖에 앞좌석 폴 폴딩 기능과 뒷좌석 슬라이딩 6대 4폴딩 기능으로 모든 좌석을 접는 ‘폴 플랫’이 가능해 실내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기아가 ‘더 뉴 기아 레이’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Gravity)를 출시했다. 그래비티는 레이의 최상위 트림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강인한 인상을 강조했다.

(기아 제공)

여기에 기아는 레이에 다양한 첨단 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사양을 새롭게 적용해 상품성도 향상한 것은 물론, 선호도가 높은 편의사양도 대폭 추가했다. 이처럼 기존 대비 사양을 더해 상품성을 강화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 매력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기아는 더 뉴 기아 레이 그래비티 모델 출시와 함께 레이 전용 커스터마이징 용품도 추가로 선보였다.

차박 등 야외 활동 시 레이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이드 타프(그늘막) ▲사이드 프로젝트 스크린 ▲테이블&사이드 탈부착

식 수납가방 세트 ▲조수석 테이블 ▲헤드레스트 멀티 후크 ▲멀티 컷터(전면·측면·후면) 등 용품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또 기아는 전 차종 대상 차량용 액세서리 주문 제작 서비스인 ‘기아 마이 팔레트’(Kia My Palette)도 신규로 운영한다.

기아 마이 팔레트 서비스는 기아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의 ▲그릴 배지 ▲휠 캡 ▲데칼 등의 액세서리를 주문 제작해 개성 있는 나만의 차량을 만들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더 뉴 EQE, 안전도 ‘유로 NCAP’ 최고 등급

메르세데스-벤츠의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 ‘더 뉴 EQE’(사진)가 유럽에서 실시하는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2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유로 NCAP은 1997년부터 시작된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으로, 유럽의 정부 부처, 자동차 산업, 소비자 및 보험기관 등으로 구성된 신차 안전성 평가에 있어 높은 신뢰도를 자랑한다.

더 뉴EQE는 ▲탑승자 안전

▲어린이 탑승자 안전 ▲보행자 충돌 안전 ▲안전 보조 시스템 등 유로 NCAP의 4가지 평가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얻으며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다. ‘강력한 충돌 방지 기술이 잘 갖춰져 있으며 충돌 방지 성능이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의미하는 이번 평가를 통해 벤츠의 차량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특히, 탑승자 안전 항목 중 ‘측면 장애물 충돌’ 및 ‘기동 측면 충돌’ 평가와 어린이 탑승자 안전 항목 중 ‘전면 오프셋 충돌’ 및 ‘측면 장애물 충돌’ 평가에서 모든 중요 신체 부위를 안전한 수준으로 보호하며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또 더 뉴 EQE에 탑재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 보조 시스템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매우 좋음’(Very Good) 등급을 획득했다.

유로 NCAP은 더 뉴 EQE가 주행 시 지도 기반의 속도 제한 정보와 카메라로 입수하는 실시간 정보를 결합해 고정, 가변 및 임시 속도 제한 표시를 파악하고, 커브 및 분기점과 같은 다가오는 주행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 안전한 주행을 한다고 평가했다.

또 더 뉴 EQE의 운전보조시스템에 대해 ‘운전자 개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우수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며, 최첨단 안전 장치와 더불어 고속도로 주행 시 탁월한 수준의 주행을 지원한다’고 평가했다.

더 뉴 EQE는 벤츠의 대용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EVA2’를 기반으로 개발된 두 번째 모델이며, 88.8kWh의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471km주행이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